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  
잠할지니라  
지니라

제목 :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                      성경:  
시편95편

Tag: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  
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 여호와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  
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  
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  
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  
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 하지 말지어다

9 그 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  
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 내가 사십 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  
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  
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  
95:1-11)

다윗은 유명한 찬양가.

그는 수많은 시를 지었고, 노래를 작곡하였다.

특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시  
편이 그 증거가 된다.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겼고, 기쁠때나 슬플때나 두려울때나, 고통중에  
있을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를 지었다.

찬양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수단이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  
나게 한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은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며, 만족을 얻으며, 치유를 받고, 진정하게  
되어 평안을 누리게 된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진심을 수준 높  
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며, 동시에 찬양의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은총이 우리 영혼에게 더 잘 전달된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게 된다. 찬양할 때 세상의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의 영혼을 타고 우리의 몸에게까지 그 은총이 미치게 된다.

이것을 잘 알고 경험한 다윗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반석은 든든하다는 의미다. 아버지와 같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기도 하고, 헌신이 되기도 하며, 기도가 되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찬양을 통한 신앙고백을 소중히 여기자.

아멘.

또한 찬양은 연습과 훈련도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총으로, 더 큰 영적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를 그런 영적 세계로 초청하고 있다.

이어서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자랑하고,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두지만, 우리영혼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깨달아졌음을 고백하고 있다.

3 여호와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  
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다.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우리는 땅 속 깊은 곳을 알지 못한다. 파내려 가려

해 보라.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의 손 안에 있다. 높은 산들도 바다도 드넓은 육지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때, 더 많이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에 대한 원리도 더 많이 깨닫게 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도 깨닫게 된다.

7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7절까지는 ‘우리’라는 인칭대명사가 많이 사용되었다. 7회.

-7절 후반부 부터는 ‘너희’라는 인칭대명사가 5회 사용되었다.

-마지막에는 ‘그들’이는 인칭대명사가 2회 사용되었다.

-‘우리’는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묘사된 자들은 신약 이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뜻한다.

-특히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르시는 목자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양처럼 돌보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무리들도 있다.

시험에 든 자들이든지, 시험에 들려는 꾀새가 있는 자들이다. 다윗은 그들을 ‘너희’라고 따로 분류해서 불렀다.

8 너희는 프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프리바와 맛사(시험); 원래의 지명은 ‘프리바’ 인데 ‘맛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분쟁’이란 뜻.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도중 식수(食水)가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갈증을 해소한 장소다(출 17:1-7).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마음이 완악해진 자들.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동을 잃어버린 자들.

9 그 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  
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한다.  
-사사건건 하나님께 반항하고, 모세의 통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다.

10 내가 사십 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  
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  
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들의 훼방이 광야 40년을 만들었다.  
-그들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  
한다.  
-오늘도 악한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나라를 멸  
망의 길로 끌어간다.

11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  
95:1-11)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리더의 영성      성경: 유다서 1장  
20-25절

Tag:

2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1:20)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을 기다리라 (유1:21)

22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훈히 여기라 (유1:22)

23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공훈히 여기라 (유1:23)

24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유1:24)

25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1:25)

유다서(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4명이 나옴. 처음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음. 그러나 부활이후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됨.-유다와 야고보 누가 더 형인지 알 수 없음.)

-유다서는 이단들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그러나 신사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함.

-유다서의 기록 목적

3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1.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는 영성(20)

-자신을 건설하는 자; 자신의 건강, 자신의 일, 자신의 신앙, 자신의 가정, 자신의 신학.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수신제가 >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하며 치국평천하를 위해 기도하라.

## 2.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21)

- 특히 세속주의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 악한 이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 가만히 들어온,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방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 특히, 힘써 싸우라.
-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고 가정이나 교회를 지키기 힘들다.
-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 악한자들이 펼쳐놓은 그물에 걸릴 것인가?
-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새로움에 대한 도전정신을 고취하라.
- 악한 자들도 세뇌하느라 바쁘다.

## 3.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홀히 여기라.

22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홀히 여기라 (유 1:22)

23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

## 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1:23)

-각종 율법주의에 물들면 마귀의 속삭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된다. (진화론, 막스주의, 주체사상)

-내로남불, 조국스러움, 우기기, 거짓말하기, 편가르기 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진흙탕 싸움인가?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구역의 미친X. 두 사람 주인공은 서로에 대한 의심이 극심했으나, 사랑으로 서로의 아픔을 긍휼히 여김으로 안아 주면서 승리하게 됨.

-그러나 이 두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과 싸워 승리함.

-관행과 올바름에 대해 경계하라. 관행이라는 손쉬운 윤리로 일을 해치우듯 함을 경계하고, 마땅함에 대한 감각을 키우라.

4.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거침이 없게 하시는 주님.

24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유1:24)

-그러므로 도전하고, 실험하라.